

#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석소현\* · 신동수\*\* · 오 희\*\*\* · 김호미\*\*\*\* · 김귀분\*\*\*\*\*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 신념, 인생관 및 사회적 가치관 등이 확립되는 시기로, 진리탐구 및 교양교육과 아울러 보다 좋은 직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사회적 위치를 정립하는 기간이다. 현대사회의 대학은 학문과 연구의 기능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 및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류진혜, 2002;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오혜경, 2003).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생활로 변화되는 사회적 전환기일 뿐 아니라 자아인식, 주체성 확립, 이성교제,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설정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들은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과중한 학습뿐 만아니라 임상실습을 경험해야 하므로 환자간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과 지식 및 경험부족, 엄격한 행동 규범 등과 관련된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역할적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더욱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국가고시라는 커다란 관문과 날마다 어려워지는 취업의 좁은 문 때문에 간호대학생들은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박현숙 등, 2002). 간호대학생들은 또한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 사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것

은 바로 이 시기의 필수적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과정으로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간호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들이 현존해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수행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기가 보다 쉬울 수 있다 (오혜경, 2003).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에 의하면 어떤 과제를 특정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며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 김용래와 유효현(2002)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개인 자신의 전체적인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초래하는 것으로서, 과제상황을 다루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별한 행동을 수행하는 개인자신의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예상할 수 없는 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잘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지적 판단으로 정의하였다 (박영신, 김의철, 2003). 자기효능감에 대한 최근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Skaalvik과 Skaalvik(200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학생의 학업성취, 동기부여, 그리고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ellar, Yorke, Nelson과 Carroll (200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은 개인인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직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전임강사      \*\*\*\* 경희의료원 부속병원 간호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

다고 하였다. 박현숙 등(2002)의 연구에서는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간호대학생은 학업 또는 취업스트레스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고 각각의 개념으로 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김아영, 김민정, 2002;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이주현, 이순목, 2001), 대학생활만족도는 대학별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었다(이은경, 1994).

이에 본 연구자들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활에 적응을 돕고 긍정적으로 만족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써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를 규명한다.

## 3. 용어 정의

### 1)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특정 수준까지 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판단이며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상황적·구체적 자신감의 강도를 의미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안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2)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란 대학생활에 대해 마음으로 흡족한 느낌을 말하며 (국어사전, 2004), 본 연구에서는 이은경과 김미경 (1993)이 개발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자가 주,야간 학부 3,4학년으로 1,2학년을 제외한 고학년 중심으로 나온 결과이므로 간호대학생의 1-4학년으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킬 수 없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 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두 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중에서 접근가능한 3,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3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995)이 번안한 도구로 총 23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1였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10였다.

#### 2) 대학생활만족도 측정도구

이은경과 김미경(1993)이 개발한 대학생활만족도 측정도구로 총 4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3였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623이었다.

### 4.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였으며 서울, 경기도지역에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총 384부중에서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352부(회수율 91%)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목적과 변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은 서술적 통계를 사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검정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성별은 여성이 352명(100.0%)으로 모두를 차지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25세 이하가 201명으로 57.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학년은 주간학부 3, 4학년이 각각 42.6%와 33.8%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309명으로 87.8%를 차지하였고, 흡연상태는 대부분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348명, 98.8%). 용돈은 50만원이하가 307명으로 87.2%을 차지하여 많았으며, 용돈의 출처는 자기자신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170명(4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대상자가 166명(47.2%)으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공에 대한 선택결정자는 자기자신이 268명(76.2%)으로 다른 항목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담자가 있는 대상자는 322명(91.5%)으로 많았으며 친구와 마음 터놓고 얘기한다는 대상자가 69.3%로 어머니, 아버지, 선생님, 이성친구, 형제자매, 선배보다 가장 많게 나타났다.

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 정도와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15.86점(총점 평균 79.29점)으로 최소 9.4점(총점 평균 47점) 최대 105점(총점 평균 21점)을 나타내었고, 대학생활만족도는 평균 14.10점(총점 평균 2.82점)으로 최소 5점(총점 평균 1점) 최대 17점(총점 평균 3.4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760, p=.000$ ).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2)

특성	구분	실수	%
성별	여성	352	100.0
	20-25	201	57.1
연령(세)	26-30	122	34.7
	31-35	18	5.1
	36 이상	11	3.1
	RN-BSN 3학년	34	9.7
학년	RN-BSN 4학년	49	13.9
	3학년	150	42.6
	4학년	119	33.8
결혼상태	예	43	12.2
	아니오	309	87.8
흡연	아니오	348	98.8
	기타	4	1.2
용돈(원)	500,000 미만	307	87.2
	500,001 이상	45	12.8
용돈출처	부모님	166	47.2
	자기자신	170	48.3
	형제자매	6	1.7
	기타	10	2.8
전공선택 결정자	자기자신	268	76.2
	선생님	10	2.8
	부모님	55	15.6
	형제자매, 친구	9	2.6
상담자	기타	10	2.8
	예	322	91.5
*어머니	아니오	30	8.5
	예	164	46.6
*아버지	아니오	188	53.4
	예	30	8.5
*친구	아니오	322	91.5
	예	244	69.3
*선생님	아니오	108	30.7
	예	16	4.5
*이성친구	아니오	336	95.5
	예	92	26.1
*형제자매	아니오	260	73.9
	예	92	26.1
*선배	아니오	260	73.9
	예	40	11.4
	아니오	312	88.6

\* 중복 체크함.

<표 2>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상관관계 (N=352)

	자기효능감	M(SD) Range
대학생활만족도	.760 ( $p=.000^*$ )	14.10±2.60 5.00 - 17.00
M(SD)	79.29±10.03	
Range	47.00 - 105.00	

\*  $P < .05$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 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효능감( $t=5.434, p=.020$ )과 대학생활만족도( $t=-2.811, p=.005$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차이검증은 다음과 같다<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학년( $F=2.928, p=.034$ )는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자 소유에 대한 유무는 자기

IV. 논 의

1.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N=352)

특성	구분	자기효능감			대학생활만족도		
		M(SD)	F,t	p	M(SD)	F,t	p
연령(세)	20-25	78.89(10.10)			13.99(2.73)		
	26-30	79.11(10.04)			14.04(2.43)		
	31-35	83.83( 9.74)	1.102	.356	15.38(2.25)	1.387	.238
	36 이상	80.88( 8.99)			14.33(2.34)		
학년	RN-BSN 3학년	82.58(11.89) A			14.29(3.13)		
	RN-BSN 4학년	78.16( 9.05) B	2.928	.034*	13.87(2.34)	.887	.448
	3학년	77.96( 9.17) B	A>B		13.91(2.68)		
	4학년	80.49(10.61) B			14.37(2.44)		
휴학횟수(회)	1	79.28(10.13)			14.09(2.63)		
	2	79.34( 9.44)	.002	.968	14.15(2.42)	-.140	.889
결혼상태	예	81.39( 9.01)			14.46(2.32)		
	아니오	79.04(10.03)	1.363	.257	14.06(2.64)	.664	.515
흡연	아니오	79.31( 9.94)			14.10(2.61)		
	기타	75.25(18.15)	.620	.539	13.25(2.50)	.829	.437
용돈(천원)	500 미만	79.39( 9.92)			14.06(2.64)		
	500 이상	77.70(10.69)	1.452	.235	14.22(2.42)	.512	.600
용돈출처	부모님	79.52( 9.33)			14.19(2.54)		
	자기자신	79.44(10.71)			14.11(2.61)		
	형제자매	72.83(13.02)	1.096	.351	12.16(4.07)	1.350	.258
	기타	76.70( 6.21)			13.50(2.41)		
전공선택 결정자	자기자신	79.90( 9.93)			14.27(2.51)		
	선생님	77.50(12.94)			13.30(3.83)		
	부모님	77.87(10.02)	1.566	.169	13.72(2.62)	1.289	.268
	형제자매, 친구	79.00( 5.83)			13.25(2.50)		
상담자 소유에 대한 유무	있다	79.66( 9.97)	5.434	.020*	14.21(2.54)	-2.811	.005*
	없다	75.23( 9.86)			12.83(2.96)		
어머니	예	79.10( 9.88)	.137	.711	14.06(2.68)	-.293	.770
	아니오	79.50(10.21)			14.14(2.53)		
아버지	예	79.40(10.05)	.431	.512	14.13(2.63)	.804	.422
	아니오	78.16( 9.85)			13.74(2.29)		
친구	예	76.66( 9.81)	11.083	.001*	13.50(2.81)	-2.905	.004*
	아니오	80.46( 9.92)			14.36(2.47)		
선생님	예	79.09(10.04)	2.774	.097	14.06(2.62)	-1.074	.284
	아니오	83.23( 9.23)			14.76(2.25)		
이성친구	예	78.78(10.17)	2.495	.115	13.98(2.70)	-1.369	.172
	아니오	80.69( 9.53)			14.41(2.30)		
형제자매	예	79.10( 9.89)	.346	.557	14.09(2.59)	-.116	.907
	아니오	79.81(10.44)			14.12(2.66)		
선배	예	79.50(10.09)	1.284	.258	14.10(2.64)	.134	.894
	아니오	77.60( 9.50)			14.05(2.36)		

\*P< .05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79.29점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현일과 김기원(2001)의 연구에서 63.30점으로 나타난 것과 오혜경 (2003)의 연구에서 62.75점으로 나타난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로 동일하게 측정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비교가 가능하며 두연구들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므로 자기효능감이 일반대학생들보다 간호대학생들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직이라는 전문직업을 가지기 위한 강도 높은 학업과 긴장속에서 이루어지는 정기적인 병원실습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시간관리 및 능력관리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다른 일반대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결과는 Lim, Downie과 Nathan(2004)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들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는 14.10점으로 중간점수인 1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서 다른 과로 옮기거나 휴학 및 자퇴하는 간호대학생들은 많이 감소되었지만 간호대학생으로서의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만족하여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많음을 보고한 박현숙 등(2002)과 오혜경(2003)의 연구와는 약간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주간학부 3,4학년과 간호사면허증이 이미 있고 현재 사회에서 간호직을 수행하고 있는 야간학부 3,4학년이므로 간호대학에 입학한 후 초기인 주간학부 1,2학년 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 부적응 및 불만족들이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또는 간호사로서 사회에서 활동하면서 감소되며 적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사료된다. 이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은경(1994)의 연구와 오혜경(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순애(1998)의 연구에서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게하여 만족감을 갖게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김정남(1999)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성취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높혀 건강한 삶의 질의 성취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용래과 유효현(200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된 개인으로 자리잡으며 자신

을 개발하는 중요한 시기인 대학생들에게 향상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하며 대학생활만족도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가 많은 긴장된 대학생활속에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 및 유지시켜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의 차이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학년은 자기효능감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결과는 박현숙 등(2002)과 오혜경(2003)의 연구에서 학년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가 주,야간 학부 3,4학년으로 1,2학년을 제외한 고학년 중심으로 나온 결과이므로 간호대학생의 1-4학년으로 확대하여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중심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주간학부 4학년과 야간학부 4학년이 주간학부 3학년에 비해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학년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한 Lim 등(2004)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년중에서 야간학부 3학년이 야간학부 4학년과 주간학부 3,4학년의 자기효능감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상이하였다. 이결과는 학사학위를 가지기위해서 간호전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 이미 진출한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자하는 열의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속에서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추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학년과 대학생활만족도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게 나타났다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은경(1994)의 연구에서 학년별로 저학년일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만족도가 낮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였다. 마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마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높고 대학생활만족도도 긍정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친구를 가장 많이 마음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대학생활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친밀감있게 지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들은, 박현숙 등(2002)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년, 대인관계 유능성, 대학생활 만족감, 취업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또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학업, 취업 스트레스가 낮고, 문제 중심적 대응을 많이 이용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오혜경 (2003)의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학년, 연령, 성격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정도에 따라 긍정적인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로서 위의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전공 심화과정인 3학년, 4학년때 높은 것을 볼 때 간호대학생이 되고 바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향상된 자기효능감을 고학년때 유지될 수 있도록 간호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가 상담자가 있을 경우에 높은 것을 볼 때 대학생활을 영휘해 가는데 가급적 상담자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도록 교육 및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구와의 교제를 넓히는 동아리 모임 등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활에 적응을 돕고 긍정적으로 만족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며,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간호대학 두곳에 재학중인 접근가능한 3,4학년 간호대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측정도구는 Sherer 등(1982)이 개발하고 Hong(1995)이 변안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Cronbach's alpha=.810)와 이은경과 김미경(1993)이 개발한 대학생활 만족도 측정도구(Cronbach's alpha=.623)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4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였으며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은 SPSS PC+를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변수의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평균 79.29점으로 최소 47점 최대 105점을 나타내었고, 대학생활만족도는 평균 14.10점으로 최소 5점 최대 17점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760$ ,  $P=.000$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중 학년( $F=2.928$ ,  $P=.034$ )는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자 소유에 대한 유무는 자기효능감( $t=5.434$ ,  $P=.020$ )과 대학생활만족도( $t=-2.811$ ,  $P=.005$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이 일반대학생에 비하여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며 만족해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상담이 필요하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국어사전 (2004). 국어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 김아영, 김민정 (2002). 초등교사들의 교사효능감과 학교조직풍토와의 관계.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3), 5-29.
- 김용래, 유효현 (2002). 자기효능감과 수업동기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탐색. *인문과학*, 10, 93-113.
- 김정남 (1999).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17집, 67-96.
- 류진혜 (2002).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지도방안. *학생생활연구*, 9, 83-95.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박영신, 김의철, 민병기 (2002). 부모의 사회적 지원,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생활만족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분석과 생활만족도 형성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16(2), 63-92.
- 박현일, 김기원 (2001).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간의 관계. *연구논집*, 19(1), 7-23.
-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 오혜경 (2003). 여대생의 신체상,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5(2), 278-285.
- 이은경 (1994).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생활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 연구*, 30, 49-68.
- 이은경, 김미경 (1993). '본교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I'.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9, 63-79.
- 이주현, 이순목 (2001). 영어학습에 관련된 동기변인들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17-234.

정순애 (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Cellar, D. F., Yorke, C. M., Nelson, Z. C., & Carroll, K. A. (2004). Relationships between five factor personality variables, workplace accidents, and self-efficacy. *Psycho Rep, June, 94(3 Pt 2)*, 1437-1441.

Hong, H. Y. (1995). *A study on completenes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en University, Seoul.

Lim, J., Downie, J., & Nathan, P. (2004).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in providing transcultural care. *Nurse Education Today, Aug, 24(6)*, 428-434.

Sherer, M., Moddoh,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Skaalvik, E.M., & Skaalvik, S. (2004). Self-concept and self-efficacy: a test of the internal/external frame of reference model and predictions of subsequent motivation and achievement. *Psychol Rep, Dec, 95(3 Pt 2)*, 1187-1202.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Method:** Design was descriptive correlative study, and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52 persons who are students on 3 and 4 grade in nursing college. Measures wer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measurement (Cronbach's alpha=.673) and self-efficacy measurement (Cronbach's alpha=.810).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2004 to January, 2005.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C+ on each aim of this study. **Result:**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In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there wa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 $r=.760$ ,  $p=0.00$ ). 2. In difference of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rade and consultor ( $p<.05$ ). **Conclusion:** Further needs nursing intervention to improve positively the self-efficacy that may effect on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Kwuy Bun  
 College of Nursinf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0314 Fax: +82-2-961-9398  
 Email: kuikim@khu.ac.kr

- Abstract -

Key concept :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Sok, R. Sohyune\* · Shin, Dong-Soo\*\* · Oh Hee\*\*\*  
Kim, Ho-Mi\*\*\*\* · Kim, Kwuy-Bun\*

---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 Research Assistant,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Nurse, Kyung Hee Medical Center